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구술인물사 / 최연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 민중불교 이론 확립

“화랑의 정신 본 받으면 좋겠다”

최연은 중앙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해 문학인으로서 출발을 위해 ‘정오문학회’라는 서클에 가입했다.

최연은 처음부터 불교학생회에 가입한 것이 아니었다. 문학동아리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던 그는 방향하던 마음을 다잡고자 중앙대 불교학생회를 찾았고 여기서 사회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1학년 말에 가입했고 2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전국 조직인 대불련(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과도 인연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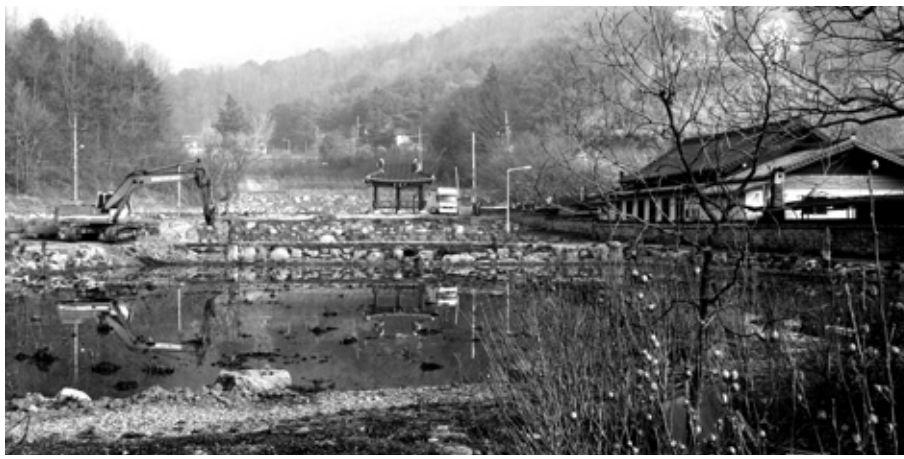
“불교학생회가 바로 중앙 대불련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각 대학교의 학생들이 모여 당시 현실문제에 대한 농도 짙은 담론들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중앙대 불교학생회는 지회여서 아직까지 그런 현실적인 담론이 논의되지 않았고, 단순히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현실인식 정도였습니다.”

1974년 대불련 회장은 중앙대 선배인 윤세원이었다. 당시 윤세원은 후배인 최연을 대불련과 인연 맺도록 했다. 1975년 대불련 회장은 전재성이었는데, 그는 민청학련

과 관련돼 항상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경찰의 감시 때문에 전재성은 활동이 쉽지 않았고 기획부장인 최연이 회장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1976년 최연은 대불련 회장이 됐고, 활발한 불교운동을 전개한다.

“사회와 민중과 만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화랑의 정신을 본받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그렇게 민중 지향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화랑이란게 본래 선민(選民) 아니겠습니까. 대학생 불자로서 기득권은 인정하고 불교정신으로 사회의 민중들에게 계도에 나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화랑대회가 아닌 ‘한국불교 1600년 대회’로 이름을 바꿔 활동했습니다.”

1975년 최연은 대불련 기획부장 역할을 시작하면서 불교의 대 사회운동에 대해 관심을 집중했고 이 때 다양한 논의들이 일어났다. 당시 스님들중 정화운동으로 인한 중단 분류 때문에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1972년 유신독재 체제 시작에 이어 1974년 민청학련, 육영수 여



1976년 8월 14일 대불련 수원회 대회 장소. 현 전북 완주 송광사역 소양캠프장.

사의 피격, 이어지는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산화에 따라 국내의 정세도 복잡하게 돌아갔다. 스님들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부분을 대불련이 떠맡는 상황이었다. 특히 대불련 회장 전재성의 동기였던 김상진이 민주화를 외치며 활복자살을 해 파문이 컸다. 전재성과 최연을 비롯한 대불련 간부들도 사회적 분위기를 의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불교는 시대적으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1975년부터 그런 인식들이 문제가 되면서 전재성 회장이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의식을 갖고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울대 출신 학생들이 본부임원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1974년 말부터 1975년까지 대불련에서는 학생운동의 문제들을 불교운동 즉 불교의 과제화가 되도록 끌고오는 작업들이 이뤄졌습니다.”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자신의 힘에 도취된 크로노스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인드라의 탄생 비밀

인도에는 신의 계보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베다에 등장하는 신들이고 다른 하나는 힌두교에 등장하는 신들이다. 힌두교를 대표하는 세 명의 신은 창조주인 브라흐마와 보호의 신 비슈누 그리고 가장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공포를 주는 파괴의 신 시바가 있다. 그리고 베다에 등장하는 세 명의 대표적인 신이 바로 불의 신 아그니와 태양의 신 수리아 그리고 리그베다 최고의 숭배 대상인 비의 신 인드라이다. 이 인드라가 불교에 흡수되면서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한자문화권에 서 번역돼 불리게 된 이름이 바로 제석천이다.

베다에서는 인드라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불교의 흡수되기 전, 베다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드라의 탄생은 자못 비극적이다. 인드라의 비극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묘사된 제우스의 탄생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 둘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아버지를 살해

하고 스스로 신들의 왕이 됐다는 것이다. 이들이 아버지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가 이 비범한 아들들의 탄생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은 대립하는 존재인가

신화 속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운명적으로 아버지와와의 대결을 피할 수 없다. 물론 남신(男神)에 한해서 그렇다. 여신(女神)의 경우 폭력보다 훨씬 영악한 방법을 쓴다. 베다의 신화에서 인드라는 이 필연적인 대결의 최종 승리자이다. 리그베다에서는 인드라의 이런 태생적인 부분과 운명을 극복한 영웅의 탄생이라는 극적인 요소들이 매우 흥미롭게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인드라의 아버지는 하늘의 신 드야우스이고 어머니는 땅의 신 프리티비이다. 드야우스와 프리티비는 여러 자식을 낳았는데 그 중에는 새벽의 신 우샤스와 불의 신 아그니도 있었다. 드야우스와 프리티비는 자신들의 아들과 딸을 사랑했다. 하지만



인드라

삽화=김영수

프리티비가 인드라를 임신하자 드야우스는 물론 다른 신들의 태도까지 돌변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날 경우, 신들의 서열과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징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드라는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의 질투와 경계의 대상이 됐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신들의 왕이 되는 과정이 2대에 걸쳐 반복된다. 1대 주인공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역시나 먼저 하늘의 신과 대지의 여신이다. 하늘의 신 우라노스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 사이에서 많은 자식을 낳았다. 그런데 이처럼 완전무결한 결합에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 중에는 괴물처럼 흉측한 존재도 있었다. 우라노스는 아름다운 자식들은 지상에 남겨놓고 흉측한 자식들을 땅 속 깊은 곳에 가둬 버렸다. 자식을 차별하는 남편의 행동을 견디기 힘들었던 가이아는 우라노스를 몰아내기 위해 지상에 남은 막내 아들 크로노스를 설득했다.

이때 가이아가 크로노스에게 부탁한 방법은 사투 영기적이다. 가이아는 남편 우라노스가 그녀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 크로노스를 시켜 그의 성기를 잘라버렸다. 잘리지 않음을 잃은 우라노스는 모든 힘을 빼앗긴 채 쫓겨나고 말았다. 우라노스가 사라지자 가이아는 크로노스에게 그의 형제들을 지상으로 데려올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크로노스는 자신의 힘에 도취돼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경주 남산

통일신라의 불교신앙을 한 눈에

신라인들은 경주를 중심으로 삼아 부처님의 나라로 이뤄 놓았다. 불상, 탑 하나 하나마다 무수한 전설들이 전해진다. 신라 땅에 들어온 불교는 한국적인 새로운 불교신앙의 형태를 보여준다. 불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종류의 불상들을 조성하고, 종파마다 특색 있는 불교문화를 형성했다.

신라인들이 열광했던 범상종·화엄종·선종 등의 흐름 속에는 불교에 대한 그들만의 순수한 열정이 담겨있다. 불교신앙을 연구하면서 가졌던 가장 큰 의문점은 ‘일반신도들이 어떻게 어려운 불교사상을 깊이 이해했을까’였다. 일반신도들의 입장에서 불교의 깊은 사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라불교는 불교의 발달과 함께 일반인의 불교신앙이 함께 높아져온 점이 특징이다.

통일신라를 통 털어 가장 훌륭한 문



탑곡부처바위

서 동쪽으로 오면, 탑곡(塔谷)의 신인사(神印寺)터에 사방불과 무수한 불상군들이 존재한다. 또 탑곡을 넘어 동쪽으로 오면 동 남산에는 보리곡의 보리사 석불좌상(菩提寺石佛坐像)이 아름답게 앉아 있다. 그 옆 미륵곡에는 자그마한 마애불이 새겨져 있으며, 남산리에는 남산리 사지와 석탑 두기가 과거의 영화를 회상하고 있다.

길을 산위로 향하면 칠불암(七佛庵)의 아름다운 부처님들이 우리를 맞는다. 칠불암 위에는 신선암(神仙庵)보살님이 마치 구름위에 앉아 계신 것처럼 낭떠러지 위에 살포시 걸쳐 계신다.

서 남산의 골짜기에도 사제사지(四祭寺址), 금광사지(金光寺址), 창림사지(昌林寺址)등의 사지로부터 선방사지(禪房寺址) 삼존불 부처님이 넉넉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삼릉골을 거쳐 올라가는 길에는 무수한 불보살님들이 허리를 돌때마다 나타난다.

약수골의 대마애불입상과 용장곡의 아름다운 탑, 남쪽에는 천룡사지와 석탑 등의 무수한 부처님이 나타났다.

삼국시대로부터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조성된 무수한 불상과 탑들은 살아있는 박물관을 연상시킨다.

남산 골짜기의 돌 하나하나 마다 새겨진 그들의 신앙 세계는 우리가 보고 자란 불교도 도술세계의 구연이다. 하나의 신앙이 시작되고 새로운 신앙이 나타나 그 위에 무수히 겹쳐지면서 그들의 신앙의 힘은 위대해졌다.

오늘날에도 경주 남산자락을 걸으면 1000년 전 신라의 모습을 단박에 넘어 그들의 불교에 대한 열정과 믿음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8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 (아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1년 8월 중

◆개강일시 : 2011년 8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약간명)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교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도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高音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tal Echo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DX-707 스탠드 마이크

◆법당 전용 스피커

◆일반 마이크 V-606LC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역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편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상세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일반형) 175,000원 (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